[논단]

생티어리 기욤의 『묵상과 기도』 안에서 '함께-마음속에-떠오르는' 것에 관한 연구*

■
정 태 영
[서울대교구 신부]

서 론
1. 첫째 묵상: 알 수 없음(incomprehensibilia)
2. 둘째 묵상: 내적 조명(illuminari)
3. 셋째 묵상: 외적 얼굴(facies)과 내적 얼굴(vultus)
4. 넷째 묵상: 하느님의 감미로움(suavis)
5. 다섯째 묵상: 큰 마음(voluntas magna)
6. 여섯째 묵상: '이리로 올라오너라'(ascende huc)
7. 일곱째 묵상: 어떤 이해에서 알게 되는 얼굴(vultus notitiae tuae)
8. 여덟째 묵상: 주님의 자매인 영혼(soror mea)
9. 아홉째 묵상: 성찰의 과정(tollatur impius)
10. 열째 묵상: 우리를 중재하는 예수님의 삶(media nostra)
11. 열한째 묵상: 성덕과 수련의 하느님(deus virtutum)
12. 열두째 묵상: '묵상을 통한 상승'(ascensiones istas)
결 론

서 론

성 그레고리오 대교황(Gregorius Magnus, 540~604) 이후로 관상(contemplatio)에는 전통적인 구성요소들이 형성되었다. 거룩한 독서(lectio)가 항상 전제되었고, 묵상(meditatio)과 기도(oratio)가 이어진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묵상과 기도』(*Meditativae orationes*)라는 책은 제목 자체에 성독의 과정을 담고 있다. 성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는 것'(amor

* 이 글은 2020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ipse notitia)이다. 성 그레고리오의 가르침에 덧붙여 생티어리의 기욤은 묵상 중에 '영적 우정'(affetio)과 '내적 위안'(affectus)을 통해 주님곁에 머무를 때 우리가 삼위일체의 삶으로 인도됨을 설명하고 있다.[1)]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용어 색인'(con-cor-dance)이라는 단어 속에서 cor는 '마음'을 상기시킨다.[2)] 본 연구에서는 이 단어의 일상적인 뜻을 따르지 않고, 어원적인 의미를 따라 이해해 보고자 한다. 학문적 성서 연구에서 '성경 용어 색인'을 지칭하기 위해 쓴 단어를, 다시 거룩한 독서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체험'을 지칭하게 함으로써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생티어리 기욤의 『묵상과 기도』에 들어 있는 12개의 묵상을 대상으로 한다. 각 묵상 안에서 기욤이 '성독'의 재료로 선택한 본문은 무엇인지, '함께-마음속에-떠오르는' 성경구절들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묵상이 기도로 성장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2세기에는 기도의 구조나 형태를 정의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서술이 시도되었다.[3)] 생티어리 기욤의 『묵상과 기도』도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작성되었다.[4)] 기욤은 자신의 저서 목록을 소개하는 글에서 다

※ 안식년을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주교님과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머물 곳을 제공해 준 묵동성당 윤병길 신부와 신자들에게 감사드린다.

1) Cf. Louis Bouyer/Jean leclerq/François Vandenbroucke, *Histoire de La spiritualité Chrétienne II*, Paris, 2011, p.252

2) François Cassingena-Trévedy(프랑스와 까쌩제나-트레베디), 『말씀의 불꽃』, 서인석 옮김, 분도출판사, 2002, 66쪽, 69쪽 각주1.

3) Jean Chatillon, "Prière", in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XII/2*, Paris, 1986, p.2279

4) 『묵상과 기도』는 수사본보다는 15세기 후반 인쇄술이 시작된 이후 출판본이 더 많이 알려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데보시오 모데르나 운동의 영향으로 묵상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큰 관심 때문이라고 한다. 출판 연도별로 보면, 1499년(실제로는 1493년) 파리에서 첫 인쇄본이 나왔고, 1546년 루벵, 1550, 1589, 1590년 앙베르, 1600년 파리 등에서 간행되었다[Guillaume de Saint-Thierry, "Oraisons Méditatives", Dom Jacques Hourlier(tr.), SCh. n.324, Paris, 1985, p.13].

음과 같이 이 글을 소개한다.

> 이 책은 기도를 배우는(ad orandum formandi) 초보자들의 영혼에 결코 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5]

기욤은 체계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자신의 묵상을 자유롭게 진행하여, 초심자가 기도 중에 하느님을 찾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도우려고 노력하였다.[6]

우리는 연구의 편의상, 각 묵상을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종합'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함께-마음속에-떠오르는' 다른 성경구절들과 자신의 체험들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도 중세의 성경독서의 대가, 생티어리 기욤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마음을 더 잘 열고,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학생들도 성경묵상을 하나씩 하나씩 축적해나가면 언젠가 성경 한 구절을 통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성경의 마음 한 가운데에 가 닿게 되기를 기원한다.

1. 첫째 묵상: 알 수 없음(incomprehensibilia)

1.1. 읽기

>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은 실로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incomprehensibilia),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로마 11,33~34)

기욤은 사도 바오로를 따라서,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심

5) Guillaume de Saint-Thierry, "Lettre aux Frères du Mont-Dieu", Jean Marie Déchanet(tr.), *SCh.* n.223, Paris, 2004, p.136.

6) Guillaume de Saint-Thierry, "Oraisons Méditatives", Dom Jacques Hourlier(tr.), *SCh.* n.324, Paris, 1985, p.20.

오해서, 인간이 하느님의 판단과 길과 생각을 알 수 없음에 대한 것으로 묵상을 시작한다.[7] 첫째 묵상은 열두 개 묵상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고 있다.

1.2. 묵상하기

> 옹기가 자기를 빚는 이의 손에서 튀어 나옵니다.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 것이다. 쥐고 있는 이와 들고 있는 이의 손에서 튀어나오면, 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이제까지 무엇을 찾았나? 그분의 뜻에 누가 저항하는가? 그리고 말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당신께 말합니다.『첫째 묵상, 2』

옹기를 빚는 도공과 빚어지고 있는 옹기의 관계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진흙이 도공의 손에 자신을 맡길 뿐 뭐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듯이, 우리 사람은 하느님의 섭리에 믿음을 갖고 자신을 맡겨야 한다.

> 불행하여라, 자기를 빚어 만드신 분과 다투는 자! 오지그릇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자. 진흙이 자기를 빚어 만드는 이에게 "당신은 무얼 만드는 거요?" […]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사 45,9)

하나의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과정에 '함께-마음속에-떠오르는' 다른 성경 본문들이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준다. 때문에 묵상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기보다는 묵상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청하며 성경을 읽어야 한다.

1.3. 기도하기

> 오 영원한 지혜여. 진흙 옹기 그릇, 폭력과 분노의 그릇, 멸망에 적절

---

7) 하울리어(Dom Jacques Hourlier)는 기욤이『로마서 주해』(*Expositio in Epistolam ad Romanos*)를 통해 얻은 결론을 여기에 실은 것이라고 본다. Guillaume de Saint-Thierry, "Oraisons Méditatives", Dom Jacques Hourlier(tr.), *SCh*. n.324, Paris, 1985, p.32.

> 한 그릇이 오히려 당신께 떨며, 당신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같은 진흙덩이로 어떤 것은 영광의 그릇을 어떤 것은 폭력의 그릇을 만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첫째 묵상, 2』

자신이 부당한 진흙덩이임을 인정하며 하느님께 기도드린다. 또한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한다.

> 왜 당신은 제게 겸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네게 더 좋은 것, 판단할 수 있는 자유(arbitrii libertatem)를 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힘이 생겼고, 선함보다 악함을 더 좋아하였다. 더 나아가 내 안에서 너의 악이 기울어갔다. 그래서 너는 너를 변명하는데 힘썼고, 나를 고발하기를 원하였다. 너의 어려움이 더러움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그대의 자리로 가라(ideo ibis in locum tuum). 분노의 질그릇(vas irae)은 멸망하기에 알맞다."『첫째 묵상, 13』

자신이 겸손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하느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묵상자가 하느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느님이 대답을 하시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4. 종합

하느님의 '알 수 없음'에 대한 성경본문을 읽고 시작한 묵상은 중간에 다른 본문 즉, 이사야서에 나오는 질그릇에 관한 본문이 '함께-마음속에-떠오른'다. 본문에서 질그릇은 자신을 빚는 도공에게 따진다. 그것은 기욤 자신의 마음이고, 하느님을 믿고 사는 많은 이의 기도이기도 하다. 또한 묵상 중에 생겨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하느님에 대한 통찰이 대화 형식의 기도로 계속해서 전개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분노의 질그릇'이 되지 말고, 자신이 가진 판단력의 자유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선에로 나아가라고 권고 하신다.

2. 둘째 묵상: 내적 조명(illuminari)

2.1. 읽기

>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내적 조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은 일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8](시편 33,6 불가타역).

하느님께 나아감과 그에 따르는 내적 조명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위로를 둘째 묵상의 소재로 삼았다.

2.2. 묵상하기

> 저는 당신께 조명 받고(illuminari) 싶었던 자입니다. 제 마음의 괴로움과 혼돈으로 모든 감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다가가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당신이 위로를 앗아 버리고자(desolare) 하신다면 누가 저를 위로하겠습니까? 저의 모든 위로(omnia solatia)는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면 사라지고 맙니다.『둘째 묵상, 1』

시편의 성경구절들을 그대로 되뇌이며, 내적인 조명과 위로를 받고 싶어 주님께 다가가고 있지만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 내면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고, 하느님께 있을 수도 있음을 묵상한다.

> 당신은 제게 선을 베푸시며 현존(es presens)하시는데, 저는 생각과 애정이 다른 곳에 팔려 있다(sum absens)면, 제게 대한 당신 은총의 선한 작용은 마치 죽은 이를 애도하고, 무덤에 정중히 예를 표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둘째 묵상, 3』

먼저 자신에게 있는 원인을 생각해본다. 만일 하느님이 자기에게

---

8) 불가타 번역: Accedite ad eum et illuminamini, et facies vestrae non confundentur(시편 33,6).
우리말 성경: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고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시편 34,6).

현존해 오시는데 자신은 다른 곳에 정신이 뺏겨 있다면, 조명과 위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 만일 언젠가 당신이 지나가시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 당신은 저를 위해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 뒤에서 가나안 여인처럼 소리 지르는 저를 모른 채 지나가십니다. 저의 긴박한 불운의 부르짖음으로 당신이 피곤하셔서, 개의 더러움처럼 내 양심의 면목없는 장애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식탁에서 굶주리고 배고픈 당신의 강아지를 채찍질하고 양심의 아픔을 가진 (강아지를) 내쫓습니다.『둘째 묵상, 4』

하느님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우리가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는데 하느님이 모른 채 지나가 버리신다면 그때도 조명과 위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3. 기도하기

> 주님, 제게 열어 주십시오. 당신께 다가갈 수 있도록, 당신의 비추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늘에 사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시는 곳에 어둠을 덮으셨습니다. 구름과 하늘 구름 속에 검은 물을 두셨습니다.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기도가 뚫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9]『둘째 묵상, 5』

하느님이 마음을 돌리시면 우리의 기도는 그분께 가 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비추임을 받으려면 먼저 그분이 열어주셔야 한다.

>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이 만일 저의 등불을 밝혀주지 않으신다면, 저의 어둠을 밝혀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 이 담장을(murum hunc) 넘어 저의 하느님께로 나아갑니다.『둘째 묵상, 15』

---

9) 우리말 성경: 어떤 기도도 꿰뚫지 못하게 당신 자신을 구름으로 감싸셨습니다 (애가 3,44).

여기서 기욤은 주님이 우리 내면의 등불에 불을 붙여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담벼락과 같은 여러 가지 한계들을 넘어서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기도를 바치고 있다.

2.4. 종합

>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님, 너의 하느님은 한분이시다."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 저는 조명을 받게(a quo sum illuminandus) 됩니다. 그 분을 저는 공경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온전히 향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제게 마주 다가오십니다. 부모님이 제게 노래해 준 가톨릭 신앙, 따라 부르다가 주입된 신앙, 당신과 당신의 박사들로부터 높이 평가된 신앙을 제게 보여주십니다.『둘째 묵상, 10』

둘째 묵상에서 기욤은 주님의 조명과 위로를 바라며 당신께 나아가고자 하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가 닿지 못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먼저 작용하지 않아 길이 열리지 않기도 함을 서술하고 있다. 우리의 내적조명은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기도의 초심자는 아직 구름이 그분을 감싸고 있거나, 자기 자신이 담벼락에 갇혀 있어서 하느님의 비추임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욤 자신처럼 하느님께 간청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3. 셋째 묵상: 외적 얼굴(facies)과 내적 얼굴(vultus)

3.1. 읽기

>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탈출 33,20).

셋째 묵상에서 기욤은 탈출기의 한 구절을 선택하며, '하느님을 뵙는 것'에 관한 묵상을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묵상과 기도』전체

의 주제이기도 하다.

3.2. 묵상하기

> 저는 감히 아직 당신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히려 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를 보고도 사는 이는 없다' 저는 죽어서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아니 뵙고서 죽고 싶습니다(videre ut moriar). 모세처럼 저도 얼굴을 가립니다. 감히 당신을 마주하여 보기를(respicere te contra te) 원하지 않습니다.『셋째 묵상, 1』

하느님을 직접 보고서 살 수는 없으니, 지금은 얼굴을 마주하기보다는 내적으로 보고 싶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나중에는 얼굴을 마주하겠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뵙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만일 하느님을 보기(respicere Deum)를 원한다면 주님을 마주 볼 것입니다. '누구'가 아니라 '무엇'(non quis sed quid)으로서의 하느님을 말입니다. 왜냐면 누구이신지(quis esset)는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셋째 묵상, 2』

하느님을 내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분의 본성(quid)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신적 본성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애덕을 통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룬 이들이라야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10]

>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은 참지를 못합니다. 당신의 현존(vultum)을 찾고(requiro), 당신으로 인해 당신 얼굴(faciem)을 발견합니다(exquiro). 마지막에 제게서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당신 현존의 빛 가운데(in lumine vultus tui) 걷는 이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걷습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은 당신의 현존에서(de vultu tuo) 나옵니다.『셋째 묵상, 3』

---

10) M.-M. Davy, *Théologie et mystique de Guillaume de Saint-Thierry 1*, Pari, 1954, p.181.

3.3. 기도하기

>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데(sis mecum) 왜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non sum tecum)?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발을 묶습니까? 무엇이 사이에 끼어듭니까?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면 제게 잘해 주실텐데, 왜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못하며, 제 모든 선의 선함으로 당신을 열매 맺지 못합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중심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십자가에 그것을 붙들어 매시는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입니까?『셋째 묵상, 4』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가?'라는 그의 질문은 하느님을 뵙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다. 이것은『둘째 묵상, 3』에서 등장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묵상 중에 드는 여러 가지 분심에 대한 고백이다.

> 청하오니, 용서하소서, 신앙의 갈망은 본래 하느님을 뵙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수수께끼처럼(in aenigmate), 저기서는 참으로 얼굴과 얼굴(facie ad faciem)을 마주하며 말입니다. 먼저 나서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오, 인간이여. 여기에 머무르지도 마십시오. 그대가 누구이든, 다니엘처럼 더 많이 갈망하는 사람이여, '만족한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대가 여기서 하느님으로부터 느끼는 것, 보는 것, 여기서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모든 믿음은 알듯 말듯(aenigma) 합니다. 어떤 것은 더 모호하고, 어떤 것은 더 분명합니다. 그것은 존재할 때는 얼마나 감미로우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는 얼마나 갈구하게 되는지 느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은 이름이 적혀있는 돌입니다. 그것을 손에 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셋째 묵상, 12』

또한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per speculum) 어렴풋이(in aenigmate)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facie ad faciem)을 마주 볼 것입니다'(1코린 13,12)라는 성경 말씀이 '함께-마음속에-떠오르고' 있다. 기욤은 자신이 쓴 책의 제목조차도 '신앙의 거울'(speculum fidei)과 '신앙의 수수께끼'(aenigma fidei)라고 붙였다. 현세에서 하느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듯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내적으로 보는 것 즉, 관상하는 것이 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3.4. 종합

하느님을 얼굴을 뵙는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렇지만 성경묵상과 기도를 통해 내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현존을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

> 당신이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임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다가가십시오(accedite ad eum). 그러면 비추임을 받습니다(et illuminamini).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셋째 묵상, 16』

주님께 다가가는 것은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비추임은 '함께-마음속에-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해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친교에 들어가게 된다.

4. 넷째 묵상: 하느님의 감미로움(suavis)

4.1. 읽기[11)]

> 불쌍히 여기시는 분,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은 인내로우시고, 크게 자비로우십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존재에게 감미로우(suavis)십니다. 당신의 모든 조물들 위에 자비를 두십니다(시편 144,8~9).

넷째 묵상의 주제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심(misericors)과 감미로움(suavis)이다. 여기서 기욤은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자기 자신의 약함

11) 불가타 번역: miserator et misericors Dominus patiens et multum misericors suavis Dominus unversis et miserationes eius super omnia opera eius(칠십인역에 따른 번역 시편 144,8~9).
우리말 성경: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신 분,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시편 145,8~9).

을 대비시키며 주님의 도움을 청한다.

4.2. 묵상하기

> 예전에 당신의 낙원에서 저를 창조하셨고, 그 생명의 나무를 영원한 법에 따라 가질 권한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과 악의 지식을 주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뻗도록 원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내면적 선에 싫증이 난 저는 제가 가진 것 바깥의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에바, 나의 육신(Eva mea, carne mea)은 그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감미로움이 아니라(non suavitatem tuam) 저의 혼돈(sed confusionem meam)을 맛보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존재의 추함은 가릴 것이 필요하고, 그 헐벗음은 당신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그 자유는 법적인 규율의 자제가 필요함을 보았습니다.『넷째 묵상, 6』

여기서 기욤은 언젠가 자신이 내적인 선에 싫증이 나서 외적인 것을 경험(experirer quid foris)하려 했고, 그 결과 하느님의 감미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혼돈을 맛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 오 좋으신 창조주여! 당신은 저를 잘 지으셨고, 영광스럽게 모양을 만드셨고, 행복하게 자리잡아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도가 말하신 바와 같이, 좋은 작품들 가운데 저를 지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셔서, 그 가운데 제가 거닐게 하셨습니다. 저를 당신의 모상과 닮음으로(ad imaginem et similitudinem tuam) 지으셨고, 당신이 만족해하시는 낙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선업을 수련하고, 뱀이 기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뱀은 기어 들어왔고, 나의 에바를 유혹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선한 양심의 낙원으로부터 쫓겨나 낯선 땅, '닮지 않음의 지역'(in regione dissimilitudinis)으로 추방되었습니다.『넷째 묵상, 9』

자신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 닮음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에바 즉 자신의 육신이 뱀의 유혹에 빠져 결국 하느님 닮음을 잃어버린 지역, 즉 에덴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여기서 에바는 '혼'(anima)을 아담은 '영혼'(animus)을 의미하고 있다.

4.3. 기도하기

> 오 창조주시여, 땅위에 저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처음처럼 붙잡으셔서 제가 제 땅 위에서 권한을 가진 이성적 인간(homo rationalis)이게 하십시오. 제 몸이 영(corpus meum subitum spiritui)에, 당신의 영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제 땅의 짐승들과 혼의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움직임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주신 권한을 후회하지 마십시오.『넷째 묵상, 11』

이제 다시 내 안의 이성적 인간이 육신에 대한 지배 권한을 되찾고, 영에 순종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니 도와 달라는 기도를 드린다.

> 당신을 섬기는 새로운 규칙(novam disciplinam)에 들어서면서, 제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제게 보입니다. 주님, 시골에서 온 촌뜨기인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 도시의 훈련된 도덕과 당신 도시의 아름다움이 주는 품격을 (말입니다). 제가 익숙해져 있는 세속의 형상으로부터 저를 벗겨주십시오(deforma me a saeculi). 그리고 저를 당신의 시민들에 익숙해지게 해주십시오(conforma me civibus tuis). 그래서 제가 그들 사이에서 흉하게 보이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던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듣기 시작했지만 낯설은 땅에서 나이를 먹은(inveteratus in terra aliena)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언어로 당신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제가 당신의 끄덕임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이해하여 무엇이 당신의 선하고, 자비롭고, 완전한 뜻인지 아는 이가 되게 하십니다.『넷째 묵상, 17』

기욤은 자신이 베네딕토회의 생티어리 수도원을 떠나 시토회의 시그니 수도원으로 넘어온 것을 새로운 규칙에 들어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삶에서 세속을 떠난 것은 이집트를 나온 것으로, 베네딕토회 수도원에서의 삶은 낯선 땅에서의 광야생활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시토회에 들어온 것은 새하늘 새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생티어리 수도원의 원장으로서 지낸 것이 과도한 직무의 연속이었고, 내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힘겨웠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4.4. 종합

넷째 묵상은 감미로우신(suavis) 하느님이 보호해 주던 내적인 삶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혼돈을 경험한 그가 다시 하느님의 감미로움으로 돌아가고 싶음을 기도하고 있는 묵상이다.

> 그리고 이제, 내 혼의 원하는 바시여. 저의 혼은 잠시 당신께로 비우고(vacare tibi), 당신이 얼마나 감미로우신지 보고(quam suavis es), 음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혼은 당신의 지극히 호의로운 자비를 청합니다.『넷째 묵상, 13』

또한 고생하던 수도원장의 자리를 벗어나 시토회의 평수사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오랜 광야생활을 마치고 복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에 비해 이해하고 있다. 내적인 삶에 대한 강한 갈망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영성생활을 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내적 삶으로 돌아가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힘'(sua + vis), 그분의 감미로움(suavis)을 누리라고 초대하고 있다.

5. 다섯째 묵상:[12] 큰 마음(voluntas magna)

5.1. 구하는 은총

다섯째 묵상에서는 다른 묵상과 달리 제시되는 성경구절이 없고, 영신수련에 자신의 마음이 익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

12) 자끄 하울리어의 연구에 따르면,『묵상과 기도』의 모든 묵상은 성경 구절로 시작한다. 그런데 다섯째 묵상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이 묵상은 주님의 수난에 길게 머무르면서 앞에 이루어진 묵상을 심화하는 것이다(Jacques Hourlier OSB, Introduction in William of St. Thierry, *On Contemplating God*, *Prayer, Meditations*, tr. Penelope Lawson CSMV, Kentucky, 1970, p.80).

지속적이고, 효과있게 기도하기 위해 제 마음(cor)이 동기를 얻고(excitare), 수련하고(exercitare), 그것에 익숙해지고(adsuefacere) 싶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당신 말고는 누구의 권위로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오 주님 예수여, 하느님 아버지의 지혜시여.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시던 기도의 모습을 다시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도의 모범(formam nobis dabas perfectae orationis)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혼자, 어떤 때는 군중 속에서, 어떤 때는 영적인 기쁨 중에, 어떤 때는 피와 땀이 흐르는 중에, 어떤 때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시는 당신을 저는 압니다.『다섯째 묵상, 1』

기도를 배우는 세 단계		
마음이 동기를 얻음(excitare)	수련 (exercitare)	익숙해짐 (adsuefacere)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자극'을 얻고, 둘째는 그것을 닮기 위해 '수련'을 하고, 셋째로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익숙해지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이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모범(forma)에서 직접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5.2. 묵상하기

영적인 기쁨과 기도를 위한 고독은 제가 본받기에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분 좋은 축복으로 제게 오지 않으시면, 제가 장소에 가기는 쉽지만 독수자의 마음(cor solitarium)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쁨(Exsultatio spiritus)은 양심의 깨끗함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저는 양심적이지 못합니다. 혹은 그것이 당신 은총의 풍부함에서 나오는데 그것에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이 요구하면 그것을 뿌리치지 못합니다.『다섯째 묵상, 2』

기도를 위한 고독(solitudo orandi)을 얻고자 하지만 하느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 겉으로 준비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경지에 이를 수는 없다. 또한 영적인 기쁨(Exsulatio spiritus)을 얻으려

면 양심이 깨끗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 가운데도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쉽게 상황의 요구에 굴복하고 만다.

> 참으로, 주님,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도 저는 의도가 있는 많은 죄를 지었고, 성령의 은총에 모욕을 행하였습니다. 세례 때 거저 받은 죄 사함의 은총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저는 죄로 돌아갔습니다.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당신을 짓밟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만일 부정한다면 짓밟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베드로가 짓밟았다고 판단하지 않으렵니다. 그가 하느님의 아들을 부정하게 되었을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당신을 부정할 때도 그는 당신을 강렬하게 사랑하였습니다.『다섯째 묵상, 10』

기욤은 자신이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자주 다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짓밟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할 때도 예수님을 짓밟기보다는 오히려 강렬하게 사랑하였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기욤은 성경 본문을 넘어서서 행간을 읽고 있다.

5.3. 기도하기

> 주님, 당신의 심판을 자비로 돌리소서. 죄로부터 죄를 벌하소서. 당신의 은총으로 충만한 사랑을 받고서도 당신을 적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pro tantillo amore) 벌하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저는 당신의 심판에로 나아가고, 당신의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자비로우신 눈에는 같은 이치로 그 죄 많은 여인이 보입니다. 그녀에 대해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다섯째 묵상, 13』

적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한다. 하지만 죄 많은 여인이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면, 기욤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여 용서받고 싶어 한다.

제 마음이 당신의 완전한 사랑의 불로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 큰 열기가 제게서 모든 죄의 독을 익히고, 땀 흐르게 하십시오. 제 양심의 모든 오염을 찾아 제 눈의 눈물로 씻게 하십시오. 당신의 십자가는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 삶의 교만으로 내 소홀함에 오래 자리 잡아 결합된 모든 것을 몰아내 주십시오.『다섯째 묵상, 14』

사랑의 불이 타올라서 죄의 독이 땀처럼 빠져나가게 해 주시기를 청한다. 죄와 욕망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기도를 잘 배우고 싶지만, 쉽게 유혹에 빠지고 만다. 기도를 위한 고독과 영적 기쁨,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는 주님을 본받고 싶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일이다. 기욤은 하느님이 자신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놓아 주셔서 모든 것을 정화하고 용서받아 그분께 나아가고 싶다고 한다.

당신은 제가 앉고, 서는 것과 저의 모든 새로운 것과 옛 것을 아십니다. 제가 적응되어 있던 세상으로부터 저를 떼 내어 주십시오(deforma me a saeculo). 저를 양성하고(forma) 당신 은총에 결합시켜 주십시오(conforma me gratiae tuae). 제가 그리로 도망갑니다. 제 마음에 당신 마음에 드는 참회의 형상을(fomam paenitentiae) 주십시오.[13] 주님 제게 순수하고, 깊고, 거룩하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은총을 위해 은총을 주시며 제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다섯째 묵상, 19』

하느님과 하나되는 과정		
세속과 떨어짐 (deforma)	양성 받음 (forma)	은총에 결합함 (conforma)

익숙해 있던 죄와 세속으로부터 떼어내서(deformare), 하느님의 모상을 우리 안에 다시 형성하고(formare),[14] 은총으로 하느님과 다시

13) 여기서 우리는 forma와 관련한 단어 놀이를 잘 볼 수 있다(Guillaume de Saint-Thierry, "*Oraisons Méditatives*", tr., Dom Jacques Hourlier SCh. n.324, Paris, 1985, 각주 13, p.106~107).

14) 참조: "당신은 성부의 지혜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새롭게 형상을 받은 우리

결합되기(conformare)를 원한다.

5.4. 종합

기욤은 다섯째 묵상에서 예수님의 모범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자극을 받는(excitare) 단계, 본받으려고 수련하는(exercitare) 단계, 익숙하게 되는(adsuefacere) 단계라고 말하였다.

또 하느님과 결합되는 과정도 셋으로 나누어서 첫째로는 죄와 세속으로부터 떨어지는(deformare) 단계, 둘째는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모상을 형성하는(formare) 단계, 셋째는 하느님과 다시 결합 혹은 화해하는(conformare)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기욤은 성독과 영적수련에 임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위해 체험하게 될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중세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스승으로 넓게 인정받게 된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있다.

6. 여섯째 묵상: '이리로 올라오너라'(ascende huc)

6.1. 읽기

> 복된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나와 함께 대화하는 나팔소리 같은 것이 말하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ascende huc) (묵시 4,1 참조).

여섯째 묵상을 위한 성경구절은 '이리로 올라오너라'(ascende huc)이다. 기욤은 묵시록의 저자가 들은 이 목소리를 영적인 의미로 이

(reformati)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형상(forma)을 따르고, 은총(gratia)으로 화해합니다"(Guillaume de Saint-Thierry, "*La contemplation de Dieu, L'oraisonde Dom Guillaume*", tr, Dom Jacques Hourlier, *SCh*. n.61, Paris, 1968, p.118~121).

해하고 있다. 즉, 이 말씀은 하느님과의 일치의 삶에로의 초대이다.

6.2. 묵상하기

> 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 당신은 아담의 일로 땅을 저주하시고 죄 속에 두셨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살도록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 안에 사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옛 저주의 계속되는 벌을 씻으면서도, 당신의 계명에서 벗어나, 날마다 새로운 저주들이 쌓입니다. […]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땅에서 당신의 하늘로 도망가고자 했나요? 교만에서 깨끗해지면 동시에 교만에서 빼내어 당신께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위로 오르기 시작하면(ascensum invenirem), 문이 열립니다.『여섯째 묵상, 2』

땅에서 사는 동안은 누구나 아담의 저주 아래 있으므로 옛 저주를 벗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저주를 쌓아가게 된다. 때문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는 '위로 오르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 땅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하늘의 확실한 문을 보면, 우리가 그리로 올라갈 수가 없겠습니까? 바오로가 대답합니다: '올라가는 이는 내려오신 그분이다.'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사랑, 당신을 향한 사랑(amor ad te)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올리십니다(illuc ascendit). 그리고 당신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내리십니다(huc ad nos descendit).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였으므로, 여기 우리에게 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며, 그곳 당신께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께 청합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문이신 그 집이 언제 누구에게 열리는 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여섯째 묵상, 7』

우리에게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문으로 삼아 하늘로 오를 수 있다.

> '스승님,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당신은 빨리 응답하여 말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또한 ‘나는 그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어서 모두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리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자리(locus tuus sumus)이고, 당신은 우리의 자리입니다.『여섯째 묵상, 10』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아버지 안이고, 아버지는 또 예수님 안에 사신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산다. 우리는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locus tuus)가 된다.

6.3. 기도하기

> 당신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진실로 당신의 하늘(caelum tuum sumus utique)입니다. […] 당신은 또한 우리에게 하늘이 있게 하십니다(tu quoque caelum nobis existens). 우리는 그리로 올라가 살고 싶습니다.『여섯째 묵상, 11』

하늘을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 현존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머무시는 자리 즉, 하늘(caelum tuum)이 되고,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가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욤이 말하는 그 하늘은 우리의 내면을 말한다.

> 하느님의 바라보심(visio eius)은 우리에게 하느님 닮음(Similitudinem)을 가져다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질 그대로가 아니라, (본질과) 비슷하게(non quod est, sed sicut est)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과 비슷하게(similes ei erimus) 하는 것은 닮음(similitudo), 바로 그것입니다. 성자께서 성부를 바라보시는 것은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하느님과 닮음의 근거입니다(similes esse Deo). 이것은 일치이고, 이 닮음은 하늘입니다(haec similitudo ipsum est caelum). 이 닮음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여섯째 묵상, 13~14』

기욤은 먼저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되어서 그분을 보게 된다고 한다. 이 닮음의 과정을 '하늘'(caelum)이라고 한다.

> 제게 여십시오. 주님, 낯선 사람인 저는 그 도시에 이름이 오르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몇 번 아니면 잠시 그곳을 제가 순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를) 보면서 당신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쫓겨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더 자주 그곳을 올라갈 수 있게 되면, 만일 꽤 오랫동안 머무른다면, 만일 더 늦게 돌아온다면, 당신의 도시의 사람들에게 제가 알려질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뻐하는 이들이 아니라, 저곳에서 기뻐하며 사는 모든 이에게 말입니다. 어떤 말로도 그곳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합니다.『여섯째 묵상, 24』

하늘나라, 그 도시에 이름이 오르기에 부족하지만 문을 열어주시고, 순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고 있다. 또한 이곳보다 저곳, 하느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오, 만일 제가 볼 수 있다면, 만일 제가 견딜 수 있다면, 만일 제가 언젠가 한 번이라도 '너의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들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 당신은 진리이십니다. 당신이 행하신 것을 완성하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여섯째 묵상, 27』

기욤은 만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다.

6.4. 종합

여섯째 묵상의 시작은 '이리로 오라'(ascende huc 묵시 4,3)는 구절이었다.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하느님 닮음'(similitudo)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또한 닮음의 과정에서 먼저 하느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 머무시므로, '닮음'이 바로 '하늘'(caelum)이기도 하다는 말을 한다. 기욤은 하늘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다. 그에게 하늘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그곳이 하늘인지 아닌지의 결정기준이 '하느님의 현존'이다.

7. 일곱째 묵상: 어떤 이해에서 알게 되는 얼굴(vultus notitiae tuae)

7.1. 읽기

> 제 마음이 당신께 말합니다. 제 얼굴이 당신을, 당신 얼굴을 찾았습니다(exquisivit te facies mea, faciem tuam). 주님, 청하오니, 당신 얼굴을 제게서 돌리지 마십시오(Ne advertas faciem tuam a me). 당신 종으로 인해 분노에 떨어지지 마십시오(시편 26,8~9).[15]

일곱째 묵상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이미 찾은 이가 다시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하는 내용을 담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주님의 얼굴을 찾아 마주하는 것은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었다.

7.2. 묵상하기

> 주 하느님, 마음의 관찰자요, 심판자시여, 당신의 얼굴에 저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하고, 낯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종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시면, 저의 불의한 얼굴은 당신의 의로운 얼굴로부터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허락하시면, 뜨거운 사랑은 용서하고, 거룩한 겸손은 저의 가난을 도와줄 것입니다. 미워하는 이들은 도망가지만,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도망가지 않으렵니다. 어떤 이들은 충실함(fiducia)을 내세우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존해 갑니다. 제게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다만 우정(amicum)을 약속합니다.『일곱째 묵상, 2』

---

15) 기욤은 시편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어 칠십인역에서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따르고 있다.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우리말 시편은 좀 다르다. 우리말 성경: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당신을 제가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시편 27,8~9).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낯설기는 하지만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도망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종의 충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친구로서의 우정을 주님께 약속드리고 싶다.[16]

> 만일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제게 물으시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확실히 답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압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자 함(volo amare te)을 아십니다. 만일 제게 천 번 물으시면 천 번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자 함을 당신이 아십니다. 제 마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17]『일곱째 묵상, 2』

베드로의 대답을 떠올리며 기욤자신도 종으로서의 공경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사랑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영적 우정을 원한다고 고백한다.

7.3. 기도하기

> 청하오니, 제게서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 영원하신 지혜시여, 오히려 당신얼굴의 비추임으로 잠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얼굴과 얼굴'(facies et facies)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과 열렬히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양쪽 다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현세에서 당신의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것을 사도 바오로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당신 제자에게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이에게도 사랑받는 이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음을 저는 알겠습니다.『일곱째 묵상, 5』

---

16)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amicos)라고 불렀다'(요한 15,15).

17) 요한 21,15~21에서 베드로에게 던진 '너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신과 인간사이의 사랑'(αγαπας με)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베드로의 대답은 '친구로서 사랑'(φιλω σε)이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고 베드로의 말을 받아 '친구로서 사랑'(φιλεις με)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그때 다시 '저는 친구로서 당신을 사랑한다'(φιλω σε)고 응답한다. 베드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친구(φιλοι μου)가 된다'(요한 15,15)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대화에 임하고 있는 듯하다.

당신의 얼굴을 찾았다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려 해보지만 충분히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 어떤 얼굴(alia facies) 있고, 또 당신에 대한 어떤 이해에서 알게되는 얼굴(alius vultus notitiae tuae)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얼굴은 너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보고도 사는 사람은 없다." 보는 것 혹은 당신의 존엄하심에 대한 거룩한 앎은 현세의 삶에서는 모름으로써 더 잘 알게 됩니다(in hac vita melius nesciendo scitur). 누군가를 아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세의 삶에서 그분에 대한 최고의 앎입니다.『일곱째 묵상, 9』

기욤은 여기서도 외적인 얼굴(facies)과 내적인 이해에서 알게 되는 얼굴(vultus)을 구분하며 설명해가고 있다. 또한 현세에서는 '모름으로써 더 잘 알게 된다'(melius nesciendo scitur)는 말을 통해 그의 신비신학적 입장도 느끼게 한다.

7.4. 종합

생티어리 기욤은 시편 26,8~9('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를 묵상하면서, 요한 21,15~21('나를 사랑하느냐?')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신과 인간으로서의 사랑 안에서는 그분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지만 영적인 우정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현세에서는 얼굴(facies)은 뵙지 못하지만 그분과의 내적 위안(affectus)과 영적 우정(amicum)을 통해 그분의 현존 즉, 내적인 얼굴(vultus)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 기욤은 일곱째 묵상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그분과의 영적 우정을 더 권고하고 있다.

8. 여덟째 묵상: 주님의 자매인 영혼(soror mea)

8.1. 읽기

나의 여인이여 […]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해주오(아가 2,14).

아가서의 여인을 기욤은 인간의 영혼(anima)으로 이해하고 있다. 불가타 번역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 기욤이 수도원 문화와 수련 전통의 배경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불가타』 아가서 2,13	기욤의『묵상과 기도』
영혼(anima) 에 대한 표현 비교	나의 여자 친구(amica mea), 나의 아름다운 이(speciosa mea)	나의 자매(soror mea)

8.2. 묵상하기

8.2.1. 얼굴

그리스도의 형제(frater Christi)인 이의 혼(anima)은 그분의 자매(soror eius)라 불립니다 […]. 만일 죄인이라면, 당신 자비의 얼굴을 청하면서 당신께 자신의 불쌍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만일 성인이라면 자신의 의로운 얼굴로 당신께 달려갑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서 '자기를 닮은 얼굴'을 만납니다. 『여덟째 묵상, 1』

죄인은 죄인대로 자기의 불쌍한 얼굴을 갖고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성인은 성인대로 자기의 의로운 얼굴을 갖고 하느님께로 나아간다. 그러면 성인은 하느님 안에서 자기와 닮은 얼굴(faciem similitudinis suae)을 만난다.

영적인 우정(affectiones)을 가진 인간의 혼은 당신께로 향한 얼굴(facies

ad te)을 가지고 있습니다.『여덟째 묵상, 2』

여기서 기욤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얼굴(facies ad te)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의 혼이 가진 영적인 우정(affectio)이라고 한다.

8.2.2. 입맞춤

> 인간 정의의 진리가 의로운 영혼 안에서 겸손하게 고백될 때 […] 의로운 고백의 입술을 내밀 때, 당신은 평화의 입술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입맞춤(osculum sponsi et sponsae)입니다. 그녀의 얼굴(cuius facies)은 당신의 입맞춤으로(osculo tuo) 자격(digna)을 갖춥니다. 오 주님, 당신의 얼굴은 침뱉음을 당하고, 그 대신 그녀의 (얼굴은) 아름답고 특별해 집니다. 당신의 얼굴은 손바닥으로 맞고, 창에 찔려 검붉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사람들의 눈에 치욕으로 뒤덮이고, 그 대신 그녀의 (얼굴은) 당신의 눈에 아름답고 특별하게 보입니다.『여덟째 묵상, 3~4』

여기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로마 10,10)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함께-마음속에-떠오르고' 있다. 구원의 진리가 담긴 신앙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느님도 평화의 입술로 받아 주신다. 인간의 신앙고백에 하느님은 입맞춤으로 다가오신다. 또한 그리스도 친히 오시어 인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수난을 감수하신다.

> 결국,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신부를 향한 당신의 감미로운 입맞춤(Hoc est osculum dulcedinis tuae ad sponsam tuam)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사랑의 포옹입니다. 이 입맞춤에 참여하지 못한 이는 불행합니다.『여덟째 묵상, 5』

주님이 우리를 위해 수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신 것 모두를 기욤은 입맞춤이라 해석한다.

8.2.3. 당신의 가슴(cor tuum)

>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많은 이들이 당신의 수난 후에 당신께로 돌아와 이 입맞춤으로 당신과 동맹이 되었습니다. 이 포옹으로 일곱 마귀가 든 마리아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포옹하고, 껴안은 이들을 당신의 가슴(ad cor tuum)으로가 아니면 어디로 이끄십니까? 당신의 감미로운 마음은 바로 당신 신성의 만나입니다(Cor tuum dulce est illud manna divinitatis tuae). 그것을, 오 예수님. 당신 혼의 초월적 지혜의 황금단지 안에 갖고 계십니다. 당신의 포옹이 그리로 이끄신 이들은 행복합니다. 그 숨겨진 분의 숨겨진 곳, 당신의 심장 한 가운데로 숨기신 이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당신 어깨로 사람들의 혼란으로부터 그들을 가려주십니다.『여덟째 묵상, 5~6』

주님이 입맞춤하며 껴안은 이들을 데려가시는 곳은 당신의 성심이다. 그곳은 사람들을 숨겨 주고, 혼란으로부터 가려 주는 곳이다. 또한 예수의 성심은 신성의 만나 즉, 거룩함을 길러 주는 양식이다.

8.3. 기도하기

> 받으소서 주님, 저의 영혼(spiritum meum)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당신께 모든 저의 영을 쏟아 붓습니다. 저의 영은 냄새가 나지만, 당신을 제게 부어 넣으시면 향기가 납니다. 당신의 감미로움으로 저의 영혼은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감미로운 향기, 오 지극히 감미로운 향기, 그것이 내 안에서 항상 더 많이 머무르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을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당신 몸과 피의 썩지 않을 식사를 먹고 마실 때 보다 더 감미로운 것이 없고,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짐승(munda animalia tua)이 입으로 다시 끌어올리듯이, 기억의 창자로부터 (끌어올려) 감미롭게 묵상하며, 새롭고 영원한 우리 구원의 효과에로 (나아갑니다). 항상 새롭게 신심의 사랑으로 되새김(novo semper pietatis affectu ruminantes)하며, 감미롭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수난 당하신 그 기억들을 다시 저장합니다.『여덟째 묵상, 7』

기욤은 자신의 영혼에 주님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청한다. 그러면 감미로운 향기가 자신 안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이

러한 일은 주님을 기억하며 행하라고 명하신 것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8.4. 종합

> 이것이 […] 당신의 얼굴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 입맞춤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 포옹입니다[…]. 만일 우리 혼의 얼굴이 당신의 얼굴(tuam faciem)을 못 찾았다면, 그것은 그의 본연의 얼굴(facies naturalis)이 아니라, 어떤 짐승의 가면(bestialis aliqua larva)을 못 찾은 것입니다.『여덟째 묵상, 9』

내 영혼이 주님께 얼굴을 보여 드리는 방법은 기도와 묵상으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것이다. 그러는 중에 생겨나는 영적인 우정(affectio)은 그분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얼굴이 되고, 그분은 입맞춤과 포옹으로 다가오셔서 당신의 성심 안으로 우리를 데려 가신다. 이것이 그분의 본연의 얼굴이다. 이것이 아닌 다른 얼굴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떤 짐승의 가면을 찾는 것이다.

여덟째 묵상에서도 기욤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외적인 얼굴을 찾으려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마음에-떠오르는' 영적 이해와 내적 위안을 통해 그분의 내적인 얼굴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다.

9. 아홉째 묵상: 성찰의 과정(tollatur impius)

9.1. 읽기

> 부당함이 치워지면(Tollatur impius), 하느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는가?(참조 이사 26,10)[18]

---

18) 우리말 성경: "악인이 자비를 입는다면 정의를 배우지 못하여 의로운 세상에서도 불의를 저지르며 주님의 위엄을 보지 못하리라."
불가타 번역: 불경건한 이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그는 정의를 배우지 못하고,

아홉째 묵상에서는 부당함을 없애는 자기 정화를 위한 성찰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9.2. 묵상하기

아홉째 묵상에서 기욤이 제시하는 '성찰의 과정'은 '양심으로 들어가기-분심-성찰-재판-사랑의 다스림'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기욤은 성찰의 단계를 제시하거나 방법론을 전하기 위한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기도의 초심자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은 어떻게 성찰을 행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9.2.1. 양심으로 들어가기

> 나를 성찰하고(excutiens me), 스스로 일어나 하느님 말씀의 등불을 켜고(accensa verbi Dei lucerna), 후회와 쓰거움 중에 나의 영혼은 내 양심의 어두운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와 내 양심의 빛 사이를 갈라놓는 그 어둠의 고약한 구름이 어디어서 나오는지 보일 듯합니다.『아홉째 묵상, 2』

9.2.2. 분심

> 이때 파리 한 마리가 내 눈으로 달려들어 나를 내 양심의 방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해야 할 일에 빠져듭니다. 이때 많은 생각이 미친 듯이, 무질서하고, 다양하고, 혼돈스럽게 나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풀어놓은 그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아홉째 묵상, 3』

9.2.3. 성찰

> 나는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앉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도록 명령합니다. 각각의 얼굴의 탄생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은 내 앞에서 자기 자

성인들의 땅에서 부당하게 처신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리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찰하기 전에, 진단하기 전에 그것들은 사방으로 튀어나갑니다. 서로서로 주고받으며 판단하는 나를 비웃는 것이 보입니다.『아홉째 묵상, 4』

9.2.4. 재판

나는 못마땅해서 화가 납니다. 나는 그것들을 내 왕국의 권한으로 더 엄하게 다루려고 일어납니다. 나는 조언을 얻기 위해서, 예전에 경험한 확실하고 안정된 것들을 끌어내어 앉힙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샘에서 나온 재판관, 고발자, 증언자입니다.『아홉째 묵상, 5』

9.2.5. 사랑의 다스림

그러므로, 잠시 생각의 구름을 흩고, 나는 나를 돌려 그들의 기원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나의 내적 위안들을 질서 잡기 위해서 입니다. 나는 필요할 때 고독안으로 숨어듭니다. 고독은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생각들 중에서는 육신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만일 그런 생각들이 열려 있으면, 나는 나의 불쌍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의심스러운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스리는 원리(princeps)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총으로 그분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직 그분께만 항구하게 비우며 간청합니다. 그 원리는 생각의 모든 혼돈을 다스리시고, 법을 주고, 한계를 정해 주고, 침범하면 안 되는 경계를 정해 줍니다.『아홉째 묵상, 7』

말씀의 등불을 켜서 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분심을 일으킨다.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성찰해본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을 펼쳐본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다.

9.3. 기도하기

이제 모든 구름이 흩어지고, 나는 더 건강한 눈을 당신께로 돌립니다. 오 진리의 빛이여, 모든 것에서 벗어나 당신과 함께 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오 진리여, 저를 당신 현존의 숨겨진 곳에 감추어 주소서. 더 은밀하고, 더 친밀하게 당신께 대화하고 싶습니다. 내 양심의 모든 굽은 데를

당신께 보이면서, 자신의 혼돈의 모욕을 가리라고 그에게 만들어주신 '아담의 가죽옷'에서 벗어나(proiecta veste pellicea Adae) 당신이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나를 벗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저의 현재와 과거의 상처들, 아무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내놓습니다.『아홉째 묵상, 8』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하느님의 사랑 앞에 선 기욤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기도한다. 성찰의 과정은 마치 에덴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나누던 은총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과 같음을 보여준다.

9.4. 종합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얼굴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말해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당신께 말합니다. '내 얼굴이 당신을 찾았습니다.'"『아홉째 묵상, 16』

우리의 부당함을 치우기 위한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 하느님과의 본래적 친교를 회복하게 된다. 이것이『묵상과 기도』를 통해 이르고자 하는 경지이다.

10. 열째 묵상: 우리를 중재하는 예수님의 삶(media nostra)

10.1. 읽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가 아니면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참조 갈라 6,14).[19]

19) 불가타 번역: Mihi auteme absit gloriari nisi in cruce Domini nostri Iesu Christi(갈라 6,14).

열째 묵상에서 기욤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하느님을 마주할 수는 없음을 피력한다.

10.2. 묵상하기

> 나는 내가 못 박힐 십자가를 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내 이마에 그으면, 마음은 기쁘고, 삶도 길을 찾아, 죽음조차 사랑하게 됩니다.『열째 묵상, 1』

기욤은 십자가를 향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과 죽음을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다.

> 천사들은 '우리의 중재자'(medium nostrum)가 있기 이전과 이후도 보는 당신의 지혜로, 당신 거룩함의 위엄을 행복하게 관상합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자신의 영원한 현존을 둡니다. 이끝에서 저끝까지 힘차게 다다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간적 운영에 놓여 있는 '구체적 중재 사건들'(media nostra)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당신께 헌신하지만 아직은 약한 영혼인 딸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미롭게 안배하십니다. 영혼은 지극히 높은 것들을 보기에는 아직 수련도 받지 못했고, 적합한 이해력을 갖지도 못하였습니다(nondum habentes exercitatos et idoneos sensus). 영혼들은 자기와 비슷한, 당신의 비천해지신 모습에 공감하고, 녹아드는 것(affici circa humilia tua et resolvi)을 좋아합니다.『열째 묵상, 2』

천사들은 시간성을 초월하여 하느님의 거룩한 위엄을 행복하게 관상한다. 하지만 인간 영혼의 능력은 천사들보다 미약하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미롭게(suaviter) 안배하셨다. 우리의 영혼은 수련도 받지 못했고, 적합한 능력을 갖지도 못하였다. 그렇지만 영혼은 자기와 비슷한 모습에 공감하고, 녹아드는 것을 좋아한다. 기욤의 이러한 통찰은 인간적인 공감(affici)과 녹아듦(resolvi)을 통한 영신수련(exercitatos)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마치 자신에게 하듯이, 당신의 것에 강하게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그의 것에 감미롭게 간청하듯 놓여 지십니다. 저는 감각적 상상력(sensualis imaginationis)의 기초를 아직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비천해 지심에 대해 마음으로 상상하며, 아직 약한 나의 영혼을 그분의 본성을 닮도록 단련하는 것(animam meam suam indolem exercere) 즉, 태어나신 구유를 안아보는 것, 거룩한 아기를 경배하는 것, 십자가에 매달린 분의 표지에 입 맞추는 것, 부활하신 분의 발에 부드럽게 입맞춤하는 것, 못 박힌 자리에 손을 넣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외치는 것 등을 허락하시고, 만족해하실 것입니다.『열째 묵상, 4』

감각적 상상력을 통해 구유를 안아보고, 거룩한 아기를 경배하고, 십자가에 입맞추고, 부활하신 분의 발에 엎드려 입맞추고, 못 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그분의 본성을 닮도록 하는 수련이다. 12세기의 영적저자인 기욤이 기술하고 있는 이 내용은 16세기 스페인의 성 이냐시오가『영신수련』에서 오관을 적용(applicatio sensuum)[20]해서 관상해 보라는 권고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욥이 말하듯이, '보면서 나는 나의 봄을 잘못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21] 기도하고 찬미할 때, 상상으로 보고, 듣고, 나의 손은 생명의 말씀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감히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당신 지혜의 감미로운 배려로 영원으로부터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은총이고, 당신 육화의 특별한 경우(de praecipuis incarnationis tuae causis)로 이것은 당신 앞에서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 교회 안의 어린 자녀들은 아직 젖을 원하지, 딱딱한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parvuli tui in ecclesia tua lacte adhuc indigentes et non solido cibo).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당신에 대해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자신이 모르지 않는 형태를 갖고, 자기들 기도의 제사 안에 신앙의 걸림돌 없이 이것을 내놓습니다. 아직 당신의 거룩한 위엄의 밝음을 직관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열째 묵상, 5』

---

20) '관상은 앞서 말한 것에 감각을 적용하는 것이다'(Contemplatio, est applicatio sensuum ad praedictas). cf. S. P. Ignatii Loyolae, *Exercitia spiritualia,* Paris, 1850, p.71.

21) 우리말 성경: 살펴보아도 탈이 없을 것이네(욥기 5,24). 불가타 번역: visitans speciem tuam non peccabis『묵상과 기도』: visitans speciem meam non peccabo.

상상력을 통한 묵상은 육화의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 다만 봄을 왜곡하거나 함부로 해서 죄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상상을 통한 묵상은 아직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딱딱하지 않은 음식(non solido cibo)에 해당이 된다.[22]

> 당신은 우리의 육신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육신은 당신의 발판(scabellum tuorum)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육신을) 기도하고(oramus), 조배하고(adoramus), 묵상합니다(obsecramus). 다윗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분의 발판을 경배하라. 그것은 거룩하도다.'[23] 『열째 묵상, 6』

주님의 육신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분의 거룩한 발판이다. 우리는 그 발판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조배하고, 묵상한다.

> 오 복된 성령의 궁전이여 어떤 망각도 십자가에 올려지신 그리스도를 치워버리지 못합니다. 믿고 사랑하는 이가 받는 구원 안에서 신선한 피가 항상 흐릅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청한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를 속량 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이가 받는 내적위로(affectus)가 항상 그 구원을 다시 새롭게 할 때마다, 우리 구원의 효과(effectus)가 우리 안에서 거행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할 수만 있는 것입니다. '확장적 청자'(amplius audentes)인 우리는 당신 수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것을 육신의 눈이 갖고, 그것에 머무릅니다. 그림의 모습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non adorantes picturae imaginem), 당신 수난의 모습 안에 있는 진리를 공경합니다(in imagine passionis tuae veritatem). 『열째 묵상, 7』

내적 위로를 얻을 때 구원의 효과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

22) 필자는 신학생들의 영성지도를 하면서 간혹 상상력을 통한 묵상이 무슨 특별한 능력인 줄로 오해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았다. 이것은 기도를 처음 시작하며 재미를 붙이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일이지 그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기도의 성숙을 거부하는 태도일 것 같다. 이는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상상력을 통한 묵상에 대한 지나친 강조의 경우에도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우리말 성경: 그분의 발판 앞에 엎드려라. 그분께서는 거룩하시다(시편 99,5). 불가타 번역: adorate scabillum pedum eius quoniam sactum est(시편 98,5).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할 수만 있는 것이다. '확장적 청자'(amplius audentes)[24]인 우리는 주님의 수난의 모습을 눈앞에 놓고 바라보며, 거기에 머무른다. 그때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그림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안에 있는 진리이다.

10.3. 기도하기

> 당신 수난의 모습을 더 주의 깊게 볼 때, 모습은 고요하지만 우리를 보며 십자가에서 말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하였으므로,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다. 죽음과 지옥이 자신들의 죽음 안으로 나를 물고 들어간다. 먹어라(comedite). 너희 친구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아 영원한 생명으로 취하여라'(inebriamini). 당신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마포가 됩니다. 그것은 복된 베드로에게 보여 진 그것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드리워진 사각(quatuor)입니다. 그 안에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깨끗해져 감사드립니다. 깨끗하지 못한 우리가 그 안에서 깨끗해집니다.『열째 묵상, 7~8』

대화형식의 기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묵상 즉, 십자가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가지는 의미와 새롭게 떠오르는 사도행전 10,11~16('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의 성경 말씀이 '함께-마음속에-떠오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십자가 모습은 보고 간직하고 머무르는 것은 그분을 먹고 취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감싸서 깨끗하게 하는 아마포가 된다.

10.4. 종합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공감하고(affici) 녹아들어갈(resolvi) 때 우리는 보이는 모습과 상상을 거쳐, 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묵상한다. 우리의 영적 이해능력이 천사들보다 부족하여 육신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

24) 확장적 청자(amplius audientes)라는 말은 성경에서 읽은 것을 오감을 활용해서 더 넓고 깊게 묵상하며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가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또한 이것은 기도의 초심자들을 위한 '딱딱하지 않은 음식'(non solido cibo)이다.

11. 열한째 묵상: 성덕과 수련의 하느님(deus virtutum)

11.1. 읽기

> 성덕의 하느님(Deus virtutum), 우리를 돌이키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우리가 구원되리이다(시편 80,8 참조).[25]

우리말 성경에서 '만군의 주님'이라고 한 부분을 성 예로니모(St. Eusebius Sophronius Hieronymus, 347~420)의 불가타 번역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로, 칠십인역을 따라서는 '성덕의 하느님'(Deus virtutum)이라고 하고, 둘째로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서는 '수련의 하느님'(Deus exercituum)이라고 하고 있다. 수련을 통해(exercitus) 사람이 성덕(virtus= vir + tus)을 얻게 된다면, 하느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기욤이 추구하고 있는 묵상과 기도 즉, 영신수련의 근거가 될 만한 이해가 담긴 하느님 이름이다.

11.2. 묵상하기

> 영혼을 돌이키는 당신의 '원죄없는 법'(lex tua immaculata)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 그 법은 당신 현존의 숨겨진 곳(in abscondito vultus tui)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리로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한 번만 당신이 제게 그리로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필경사의 갈대로 성령께서 쓰신 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 마음에 두 번 세 번 옮겨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그리로 다시 달려 들어갈

25) 우리말 성경: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시편 80,8).
불가타 번역(칠): Deus virtutum converte nos et ostende faciem tuam et salvi erimus.
불가타 번역(히): Deus exercituum converte nos et ostende faciem tuam et salvi erimus.

것입니다. 제게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면서 순수하게 신뢰하며 뒤따라 걷겠습니다.『열한째 묵상, 2』

'원죄없는 법'(lex immaculata)이란 원죄이전 에덴동산에서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의 현존을 누리던 때의 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법은 하느님의 현존에 나아갈 줄 알도록 우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기욤은 그 법을 마음에 새겨 오도록 한 번만이라도 에덴동산의 경지에 들여보내 달라고 청하고 있다.

제게 보내십시오, 주님,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리를; 그것들이 저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끌어내고, 당신의 성막으로 데려 들어갑니다. 당신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그것을 통해 너는 걸어갈 것이고, 나는 진리다. 그것을 향해 너는 걸어갈 것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것 때문에 너는 걸어갈 갈 것이다.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길도 아십니다.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길을 알 수 있습니까?『열한째 묵상, 5』

하느님의 얼굴과 현존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하고 묵상하는 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라는 말씀이 '함께-마음속에-떠오르면서' 묵상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된다.

11.3. 기도하기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대들은 저의 윗사람들이시고, 제 하느님의 종들이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저의 귀양살이는 길었습니다. 저의 영혼은 큰 어둠의 집에 있는 체류자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하였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길가에 앉겠습니다. 저는 길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군중없이 갑자기 오실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말씀이 제 마음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라. 남자답게 움직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위로 받으리라. 붙잡으라 주님을"『열한째 묵상, 10~11』

자기의 삶에서 있었던 일들도 기도 중에 '함께-마음속에-떠오르고' 있다. 윗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아 영혼이 마치 어둠의 집에 있는 듯이 느껴지지만 길가에 앉아 있겠다. 길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다.

> 지금 교회의 목자들을 통해 주님의 양떼를 영육 간에 양육하는데 애쓰시며 하느님은 특별히 영혼에 대해 요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 육신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시며 덧붙이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누가 이런 설교를 듣습니까? 누가 실행하려고 애를 씁니까? 누가 노인을 아낍니까? 누가 약한 이에게 관대합니까? 오늘날 교회의 교도권은 육적인 지혜, 이 세상의 영, 호기심, 도시성,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단순함은 비웃음을 사고, 종교적인 것은 멸시당하고, 겸손은 한 순간도 없습니다.『열한째 묵상, 16』

교회쇄신에 대한 강한 열망도 내 비치고 있다. 베네딕토회 수도원장으로 있다가 시토회로 옮기게 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묵상이다.

11.4. 종합

기욤은 성덕의 하느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면 구원될 것이라는 성경구절을 읽고(lectio), 묵상(meditatio)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함께-마음속에' 다른 성경 말씀도 '-떠오르고', 자신의 삶에서 오는 감정과 기억들도 '-떠오른다'. 그것을 모두 기도(oratio) 안에서 종합하고 있다. 열한째 묵상에서는 다른 묵상과 달리 성경구절들로만 끝나지 않고,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오는 감정과 기억, 입장들이 표명되고 있다. 성덕의 하느님(Deus virtutum), 수련의 하느님(Deus exercituum)은 삶의 단련과 기도의 수련과정을 통해 당신의 내적인 얼굴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12. 열두째 묵상: '묵상을 통한 상승'(ascensiones istas)

12.1. 읽기

주님, 제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제 애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당신의 진리 안에서, 당신의 의로움 안에서 제게 귀 기울여 주소서(참조 시편 143,1).[26]

열두째로 묵상하는 성경구절은 주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 달라는 시편저자의 마음이다. 묵상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 자신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12.2. 묵상하기

나의 묵상에 불이 붙을 때, 나는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또 무엇이 내게 없어져야 하는지 알려고 노력합니다. 당신께로 올라가는 길을 제가 시작하면서, 당신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청해 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 상승(ascensiones istas)을 준비합니다. 먼저 '큰 원함'(voluntas magna)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명을 받게 되고(illuminata), 또 이어서 내적 위안(affecta)을 얻게 됩니다. 모든 상승에서 먼저는 자기자신에게서 오는 '큰 원함'이, 이어서는 당신이 주시는 조명이, 그리고 당신이 정하시는 방식에 따른 내적 위안이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영혼인 만큼 원대하고, 당신이 합당하게 하시는 만큼 조명되고, 당신이 양성하신 것과 같이 내적 위안을 받습니다.『열두째 묵상, 16』

---

26) 우리말 성경: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제 애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당신의 성실함으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제게 응답하소서(시편 143,1).
불가타 번역(칠): Domine exaudi orationem meam auribus percipe obsecrationem meam in veritate tua exaudi me in tua iustitia(시편 142,1).

묵상을 통한 상승의 단계		
큰 원함 (voluntas magna)	조명 받음 (illuminata)	위로 받음 (affecta)

‘큰 원함’(voluntas magna)이란 다름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원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묵상에 임할 때 성경말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조명(illuminata)이 일어나고, 하느님이 내안에 당신의 모상을 다시 형성해 주시는 내적 위안(affecta)도 생겨난다. 이것은 묵상을 통한 상승(ascensio)이다. 내적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은 하느님이 들어주시는 표지이기도 하다.

> 만일 본성이 진실로 자기의 본래 근원으로(natura ad suam originem) 돌아가면,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도 하느님께 배울 수(docibiles Dei) 있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그들의 약함을 도와주실 때, 그들의 영은 거룩한 내적 위안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영적인 수련(spirituali disciplina)으로 인해 변화된 이해력(modificatis sensibus)을 얻게 되고, 어떤 특별한 은총을 가져서, 그들의 몸은 인간적이기 보다는 어떤 영적인 모습과 얼굴을 입게 됩니다.『열두째 묵상, 26』

베르나르도와 함께 기욤은 아벨라르두스 이후로 생겨난 논리와 토론 중심의 학교신학을 거부하고 묵상과 기도를 통한 신학을 강조하였다. 본성이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하느님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묵상과 기도를 통한 신학, 즉 스콜라 신학 이전의 전통적 신학의 기초가 되는 주장이다.

12.3. 기도하기

> 내적 위안(affectum), 그것만을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오는 내적 위안(affectum de te)이 아니면, 저 자신, 스스로의 내적 위안(meum affectum)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당신 안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는 것을 저는 사랑합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만 그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 말고는 제가 무엇

> 을 사랑하겠습니까? […] 왜 항상 당신으로부터 위안을(afficior de te) 받지 못합니까? 하나는 사랑(amor)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랑의 위로(affectus amoris)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봅니다. 사랑은 본성적인 것이고(amor naturae est),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amare te gratiae est). 내적 위안은 은총의 드러남입니다(affectus gratiae manifestatio est).『열두째 묵상, 28』

항상 내적 위안(affectus)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은총의 드러난 표지이다. 묵상 중에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심의 증거이다. 그런데 이 내적 위안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되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12.4. 종합

열두째 묵상에서 기욤은 '큰 원함'-'조명 받음'-'위로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묵상기도의 단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묵상과정에 대한 이러한 단계적 설명은 수도자들뿐 아니라, 은수자를 포함한 수도원 담장 밖의 기도 초심자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 묵상은『묵상과 기도』전체를 종합하고 있다.

결 론

기도의 초심자들을 위해 집필된『묵상과 기도』는 시편기도나 성경묵상 중에 와 닿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고요히 기도하며 '함께-마음속에-떠오르는' 다른 성경 본문들과 자기 삶 속의 기억들을 정리해 놓았다.『황금편지』가 내적인 삶을 살고자하는 이들을 위한 전반적인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묵상과 기도』는 내적인 삶의 핵심이라 할 묵상의 실천적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실습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구름에서 비가 생겨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없듯이, 성독(lectio)의 과정에서 묵상(meditatio)에서 기도(oratio)로 넘어가는 순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 둘은 함께 어우러져 있고, 다시 기도에서 묵상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실제로 신학생들과의 영성지도나 피정지도 때를 돌아보면, 삶 속의 기억들은 다소간 떠오르지만 다른 성경 본문들이 '함께-마음속에-떠올라'(con-cord-ance)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에 새로운 빛을 제시해주는 체험을 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은 평소에 성경과 친밀히 지내는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결과임이 분명하다. 평신도 지도자 혹은 미래의 사제가 되려면, 무엇보다 성경을 풀이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이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지내야 하겠다.

생티어리 기욤의『묵상과 기도』를 통해 신학생들과 성경을 사랑하는 이들이 묵상 중에 가야 할 마음의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Bouyer, Louis/Leclerq, Jean/Vandenbroucke, François., *Histoire de La spiritualité Chrétienne II*, Paris, Cerf, 2011.

Chatillon, Jean, “Prière”, in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XII/2*, Paris, 1986.

Davy, M.-M., *Théologie et mystique de Guillaume de Saint-Thierry 1*, Paris, 1954.

De Saint-Thierry, Guillaume, “La contemplation de Dieu, L’oraisonde Dom Guillaume”, tr, Dom Jacques Hourlier, *SCh*. n.61, Paris, 1968.

De Saint-Thierry, Guillaume, “Lettre aux Frères du Mont-Dieu”, Jean Marie Déchanet (tr.), *SCh*. n.223, Paris, 2004.

De Saint-Thierry, Guillaume, “Oraisons Méditatives”, Dom Jacques Hourlier(tr.), *SCh*. n.324, Paris, 1985

Hourlier, Jacques,. Introduction in William of St. Thierry, *On Contemplating God, Prayer, Meditations*, tr. Penelope Lawson CSMV, Kentucky, 1970.

Loyolae, S. P. Ignatii, *Exercitia spiritualia*, Paris, 1850.

Simon, Monique, *Le <<face à face>> dans les méditations de Guillaume de Saint-Thierry*, Collectanea 35, 1973.

Cassingena-Trévedy, François(프랑스와 까쌩제나-트레베디),『말씀의 불꽃』, 서인석 옮김, 분도출판사, 2002.

국문초록

거룩한 독서는 교회의 영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인 고유의 사유방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합리성과 논리성을 우선시한 신학의 풍토에 잠시 밀려나는 듯하였지만 여러 학자들의 노력과 교황님들의 인도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거룩한 독서의 전통적 단계는 읽기(lectio)-묵상하기(meditatio)-기도(oratio)-관상(contemplatio)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하느님과의 '영적인 우정'(affectio)이 쌓여간다. 하느님을 학문적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쌓여진 영적 우정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Amor ipse intellectus est).

생티어리 기욤은 묵상기도를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묵상과 기도』를 저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도생활에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았다. 각 묵상별로 중요한 요점들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묵상을 하고자 하는 이는 옹기장이 손에 맡겨진 진흙처럼 하느님께 의탁해야 한다(Ⅰ). 그리고, 묵상 중에 일어나는 비추임(illuminatio)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Ⅱ). 하느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 위안(affectus)을 통해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이다(Ⅲ). 잠시 외적인 삶을 동경했으나 다시 하느님의 감미로움(suavis)을 누리는 내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Ⅳ). 하느님을 향하는 큰 마음(voluntas magna)을 갖고, 스스로를 자극하며(excitare), 수련하고(exercitare), 원숙해져가야(adsuefacere)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멀어지고(deforma), 하느님이 양성하시고(forma), 은총에 결합시키신다(conforma)(Ⅴ). 하늘(caelum)은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이 아니다. 그것은 닮음(similitudo)의 과정을 통한 하느님의 현존이다(Ⅵ).

눈으로 보는 얼굴(facies)이 아닌 어떤 이해에서 알게 되는 얼굴

(vultus)이 있다(Ⅶ).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자매이다. 영적인 이해와 내적 위안의 '입맞춤'(osculum)을 통해 그분의 내적 얼굴을 찾아야 한다(Ⅷ). 말씀의 등불을 켜기 전에 먼저 자기자신을 성찰(excutiens) 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느님과의 본래적 친교를 회복하게 된다(Ⅸ). 우리는 '확장적 청자'(amplius audentes)로서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중재하시는 예수님(medium nostrum)의 구체적인 삶(media nostra)을 상상해 보는 것(sensualis imaginationis)은 육화의 특별한 경우이다(Ⅹ). 하느님(Deus)은 온갖 어려움과 영적인 수련(exercitum)을 통해 성덕(virtutum)에 도달하는 과정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Ⅺ). 묵상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승천, 혹은 상승(ascensio)을 이루는데 그것은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큰 원함'(voluntas magna)-'조명'(illuminata)-'위안'(affecta)의 단계로 이루어진다(Ⅻ).

이와같이 생티어리 기욤은 성독 안에서 '함께-마음속에-일어나는'(con-cord-ance) 것들에 대해 깊은 성경이해에 바탕을 둔 다양한 용어들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세의 수도자들과 은수자들, 데보시오 모데르나 시대의 내적인 삶과 영적인 수련을 갈망하는 이들, 그리고 오늘날 영성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는 좋은 목자가 되어 주고 있다.

▶ 주제어: 묵상, 기도, 조명, 하느님의 얼굴, 우정.